

품명	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	
HS code	8531.10	
관세율(%)	MFN('24)	FTA
	1.3	0



▶ 해당 품목의 對미 수출증감률은 비록 등락이 있으나 '24년 3분기 수출금액은 이전의 연평균 수출액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'24년 9월 기준 전년 대비 316.2%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함

한국의 연도별 對미 수출동향(HS 8531.10) (단위 : 천 불, %)

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2019	3,666	52.6
2020	2,158	-41.1
2021	3,517	63.0
2022	5,934	68.7
2023	3,182	-46.4
2023.9	2,403	-55.0
2024.9	10,001	316.2

▶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와 도로·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를 제외한 도난경보기, 화재경보기, 가스경보기 등 일상의 다양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사용되고 있는 생활밀착형 품목인 경보기의 최근 미국 내 對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동 품목을 3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

우리나라 對미
수출동향

(HS 8531.10)

▶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(HS 8531.10)의 對미 수출금액은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겪었으나, '24년 3분기 기준 급등함. 특히, 세부 품목 “화재경보기(HSK8531.10-2000)”의 '24년 3분기 수출금액은 이전의 연평균 수출액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대폭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

한국의 연도별 對미 수출동향(HS code 8531.10 세부품목)

(단위 : 천 불, %)

구 분	HSK	품목명	수출금액		
			2022년	2023년	2024년 3분기
		총계	5,934	3,182	10,001
1	8531.10-1000	도난경보기	3,000	169	160
2	8531.10-2000	화재경보기	140	671	6,422
3	8531.10-3000	가스경보기	681	444	463
4	8531.10-6000	전기식의 벨 또는 사이렌	27	152	2
5	8531.10-9000	그 밖의 신호기기	2,086	1,746	2,95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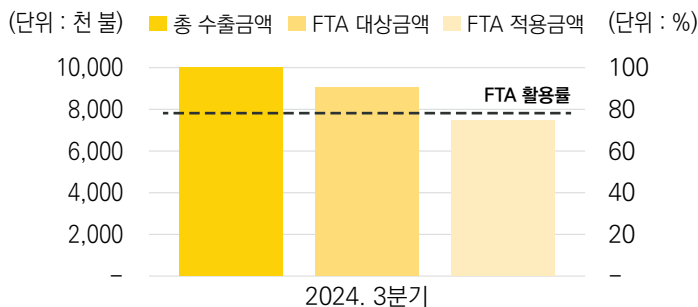
수출금액 및
FTA 활용현황

(HS 8531.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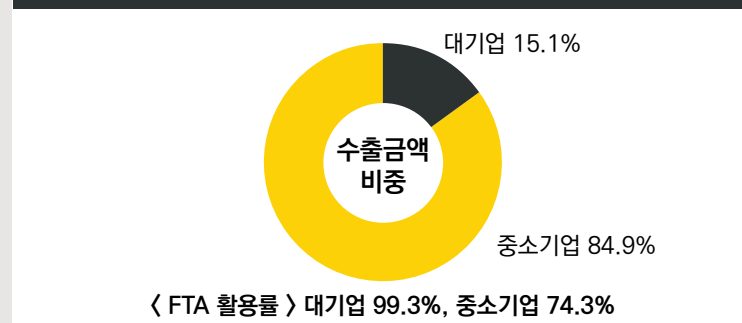
▶ HS 8531.10(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) 對미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은 다음과 같음
- FTA 활용률 '24년 3분기 78.0%로 나타남
-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CTSH임

▶ '24년 3분기 기준, HS 8531.1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15.1% 중소기업 84.9%임
- FTA 활용률은 대기업 99.3%, 중소기업 74.3% 임

[HS 8531.10 對미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(2023~2024)]



[HS 8531.1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(2024년 3분기)]



미국 수입 동향

- ▶ '24년 9월 기준 미국의 HS 8531.10의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, 말레이시아, 중국, 대만, 일본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, 한국은 수입액 기준 11위에 위치함
 - 주요 수입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멕시코(49.8%), 말레이시아(19.2%), 중국(6.0%), 대만(4.7%), 일본(3.0%) 등의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약 1.1% 수준임

특이사항

- ▶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집 안의 여러 기기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자동화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홈의 부상으로 인하여 경보기 또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, 미국은 스마트홈 시장 점유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임
 - 미국의 도난경보기 시장 규모는 약 44.61억 달러(2023년 기준)이며 올해 예상 시장 규모는 약 48.79억 달러로 약 9%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
 - 미국의 화재경보기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큰 약 101억 달러(2022년 기준)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.2%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- ▶ 최근 2024 코스모프로프 라스베가스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컨테이너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미국 내 도난 관련 이슈가 불거지고 있어 향후 미국 시장 내 도난경보기를 비롯한 경보기 산업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

시사점

- ▶ 선정품목의 한-미 FTA 특혜관세는 0%이며 MFN은 1.3%로 한-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
 -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1.3% 있는 품목이며, 주요 수입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은 FTA를 활용할 수 없음
- ▶ FTA 활용혜택이 그리 크지는 않으나,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비교적 용이하기에 스마트홈에 접목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여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
 - 또한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에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